

협회, 2013 회원대상 집합연수 개최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해 2013년도 회원대상 집합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집합연수는 서울(5월 22~24일)을 시작으로 광주(6월 4일), 부산(6월 19일), 대구(6월 21일)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기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및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감정평가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정평가 타당성 사례를 발제한 타당성 심의사례와 토지환경영향평가 등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태환 회장은 "협회교육은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실습까지 병행하는 명실상부한 고급 전문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가치평가 전문가과정 개설 및 수료식

협회와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제1기 및 제2기 기술가치평가 전문가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이 기술가치평가 전문가과정은 최근 들어 「부감법」, 「지식재산기본법」, 「동산담보법」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의 증대 및 기



술가치평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형자산 평가 분야에서 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계획은 40여 명을 정원으로 한 교육이었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제1기 과정은 4월 9일부터 12일, 제2기 과정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나누어 4일간 총 2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협회와 연구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노력으로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4일간 밀도 있고 집중적인 강의를 진행했으며, 총 116명의 회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협회는 법령상 규정된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회-CCIM 한국협회, 협력구축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협회와 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협회(CCIM 한국협회)는 지난 3월 20일 '상호 협력구축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식'을 협회 2층 협회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날 양측 대표(김태환 협회장과 김재용 회장)의 서명으로 포괄적인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속회원들의 교류 증진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기관은 상호 정보교류 및 학술발전을 위해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술세미나, 포럼 등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상대 기관 소속회원들에 대하여 교육비 할인 등 상호혜택을 도모하여 상호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협회, 몽골감정평가협회와 감정평가 MOU 체결 및 한·몽 법제전문가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14일 몽골감정평가협회와 감정평가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한·몽 법제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MOU의 체결은 한국의 우수한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2011년부터 몽골정부 차원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교류를 빈번히

이어오던 중 이루어졌으며, 협회의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은 이번이 6번째다.

김태환 협회장은 MOU 체결식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의 모범적인 감정평가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감정평가제도 및 보상제도 전반에서 몽골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OU 체결 후 개최된 한·몽 법제전문가포럼에서는 몽골 감정평가의 현주소 및 한국의 보상사업이라는 주제발표가 마련되어 양국 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최근 몽골이 국토의 개발과정에서 겪는 보상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이상적인 개선·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워크숍 개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두 번째 워크숍이 지난 6월 13일 외교센터 포에버리더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월 개최된 첫 번째 워크숍이 감칙개정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방향에 대한 전반적 정립에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 워크숍은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타요인 등 보정방법,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 토지 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 평가방법, 자가변동

를 적용 문제, 지장물 및 영업권 평가, 조건부평가 가능 여부 등 실제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2007년 감정평가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444조원에 달하는 1만 3000여 건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해 왔으며,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업무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심사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 수목감정평가 전문가과정 개설·운영



협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기수별·권역별로 나뉘어 7회에 걸친 수목감정평가 전문가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최근 수목 평가를 비롯하여 지장물과 이전비의 평가기준, 평가금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조사내역 및 산출근거 제시 등의 요구가 높아져 가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협회는 수목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과 함께 기존에 발행했던 수목보상평가자료집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목감정평가 전문가과정에는 총 300여 명의 회원들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등 수목에 대한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이론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병행

하여 기존의 전문가과정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론교육 시 수목도감을 부교재로 채택하였으며, 수목원 방문 등 현장 학습을 시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앞으로도 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교육과 함께 향후 감정평가 업계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개원 1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9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국내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성과지표의 새로운 동향 및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는 '부동산 성과지표의 새로운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민성훈 수원대 교수가, 제2주제는 '국내외의 부동산 투자정보 구축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이영호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노상윤 국민연금연구원 기금평가팀 팀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박형중 GENSTAR leasing 2팀 팀장,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팀 팀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해 부동산 투자 지표의 개발 방안, 투가지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선진 부동산시장의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됐다. **KAPA**